

익산시, 명절 앞두고 1132억 집행

사회복지·농업·사업비·공사 대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민생 안정 마중물 역할 기대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재정자립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도록 명절 전 1,1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집행되는 자금은 사회복지·농업 분야 587억 원, 각종 사업비·공사·용역·물품 대금 등 408억 원, 경상적 경비 137억 원이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 시비직불금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농업 분야의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과 하도급 등은 '하도급 지급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또한 계약 업체들이 명절 전 자금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기성금과 선금급에 대해서도 집행에 속도를 낸다.

시는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정기

예금 만기도래 예정액을 포함해 1,000억 원을 대기자금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 확보해 자금운용을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차례상 준비 등 시민의 자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절 전 각종 대금 등을 신속 지급해 혼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환경보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들, 군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군산시의회 환경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군산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치매환자 의료비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상세히 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대상 및 비용의 지원 조항 정비 등이다.

또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해 취약계층 청년의 권

익 강화,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친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통해 군산시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해당 시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청년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에 관한 사항, 청년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이어서, 군산시 경제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도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경제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환경보 의원

익산시, 뉴딜일자리·행정체험연수로 청년 자립 지원

18-39세 청년 10개월 간 근무... 학기 중 일자리 참여가 힘든 대학생 위해 방학 중 행정연수 진행

익산시가 청년 대상 공공형 일자리를 운영해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청년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18~39세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해 이후 민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익산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올해 청년 취·창업 전문가, 학예전문인력 등 22개 부서 24개 사업에 25명이 다음달부터 10개월간 근무한다. 급여는 2025년 익산시 생활임금인 시급 1만 390원이 적용된다.

시는 학기 중에는 학업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대학생의 상황

을 고려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행정체험연수도 운영하고 있다.

여름, 겨울 방학에 진행되는 행정체험연수는 시청과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직무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창출로 학비 마련 등 학생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144명의 학생이 다음달 7일까지 공공기관의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익산시는 직접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 활력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중소·중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게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다이로움으로 지원한다.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들의 자립형성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적금을 지원한다.

시는 취·창업부터 문화, 복지, 주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모여들고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익산을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15일 군산 신영시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군산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9일까지 장보기·식당 이용 캠페인 전개... 전통시장에 활기 더해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 독려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15일 군산 신영시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장보기 행사가 열린 군산 신영시장은 수산물 특화 시장으로, 박대 등 품질 좋은 수산물을 판매하며, 지난 2023년에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도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대통령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비거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의 의미로 행사에서 구매한 물품은 군산 경로식당에 전달되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로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오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설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부담 줄이는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며, 15일 장보기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단체들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및 식당 이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소식통

암환자 가발구입 지원 조례안

군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많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현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아 암환자에 대한 가발 구입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인 암환자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연령의 차별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박광일 의원

익산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익산시는 접수부터 처리까지 민원 업무에 도움을 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재정비해 친절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안내와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공무원 71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하게 된다.

운영대상은 2개 부서 이상을 경우하는 복합민원과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 등의 경우는 본인 요청시 바로 지정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공공부담 개·보수비 지원... 단지별 최대 3000만원

군산시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군산시는 2025년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이며, 단지별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했으며, 작년 2024년까지 총 549개 단지에 107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임대주택과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월 14일까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2층)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에 관한 관련 법령,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원종목 여부 등을 검토 후 2월 중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